

[오피니언]

테마칼럼

광판과 영상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라 평방

‘쏘울’과 디자인경영



이난경

“기아 신차 3형제를 디자인한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은 “디자인은 개인의 독특함과 개성을 창조한다”, “디자인만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디자인경영 철학을 설교했다.

드디어 ‘쏘울’이 나왔다! 어제 거리에서 기아 자동차의 ‘쏘울’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은 짝사랑하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기분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실제의 모습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과격적이고 신선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뽐내며 차별화에 성공한 것은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한 정영진 기아자동차 사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장 취임 후 ‘디자인경영’을 모토로 아우디와 폴크스벤겐의 수석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해 기아차 디자인연구소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을 없앤 것이 지금의 쏘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슈라이어 부사장은 경영진의 간섭이 있을 때마다 “디자인을 잘 모르는 경영자는 나서지 말라”고 하며 바깥막이 가 되어줘 디자이너의 자신감과 재량권을 키워줬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 선 디자인을 잘 모르는 경영진의 간섭으로 실패한 자동차디자인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비단 자동차뿐이겠는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속담은 이런 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다기능, 다목적에 연비도 좋은 ‘쏘울’은 실

내 인테리어도 또한 감각적이며 외부 튜닝을 소비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바로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마치 기아차 홍보요원이라도 된 것 같아 민망하지만 ‘쏘울’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산라인에 ‘쏘울 대박을 위하여’, ‘대박! 우리 손으로 이루겠습니다’란 문구를 걸어 놓은 광주1공장은 ‘쏘울’ 생산을 위해 새로 설립한 전용공정이다. 공장은 ‘자동화’, ‘친환경’, ‘작업자 중심’의 세가지 테마를 적용시켜 ‘쏘울’의 품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디자인경영 철학에 부합된 환경을 갖추어 놓았다. 이런 노력에 통했는지 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31%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요즘을 경영자들은 새벽부터 바쁘다. 이른 새벽 조찬과 함께하는 최고경영자과정에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며 디자인경영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늘 만원이다. 정치인들도 디자인으로 차별화하고 행정가들도 디자인행정을 말하는 요즘, 경영인들이 디자인경영을 모른다던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일 게다. 그러나 디자인

인 어디 몇 주간의 특강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이란 말인가. 가장 잘못된 생각은 디자인경영이 디자인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올바른 디자인경영은 기업이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를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중심이 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디자인경영이 되는 것이다. 기아 신차 3형제를 디자인한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은 “디자인은 개인의 독특함과 개성을 창조한다” “디자인만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디자인경영 철학을 일갈한 바 있다. ‘쏘울’을 통해 기아차 전체 브랜드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기회를 만든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대적이고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도입한 디자인을 계속 내놓아 우리를 즐겁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면 국내 기업의 디자인경영에도 자극과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대한민국도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 지 않을까.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고사 위기’ 전남 농수특산물 방치할 건가

전남지역의 농수특산물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국산이 홍수처럼 수에 입고 있는데다 괴잉생산으로 농민들이 가격 폭락과 판매 부진, 신뢰도 추락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수특산물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어 안타깝다. 상황은 심각하다. 완도 양식 넙치와 보성 녹차, 나주 배 등은 그동안 전통과 품질, 브랜드 가치 등에 힘입어 중국산 공세를 버텨낼 수 있었지만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분이 어려워진데다 장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일 생산되는 것도 원인이다. 양식 넙치 가격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나주 배는 절반 이하에 그쳐 껍매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보성 녹차와 영광 조기 등도 중국산에 밀려 값이 폭락하며 판로를 잃고 있다. 저장시설이 부족해 나주 배 등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을 정도다. 지역 농수특산물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농어민들은 고용가와 면세유 폐지,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가격 폭락과 판매난에 값싼 중국산마저 판을 쳐서는 농어민들이 살아가기 어렵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짚 끊 수매’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농협이 나주 배 40억원 어치를 수매해 폐기했지만 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저장시설 및 판로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농어민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생산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외국산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고급화, 명품화, 특성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어민 스스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인기 텔런트 최진실씨 ‘자살’ 충격적이다

텔런트 최진실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최씨를 비롯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충격적이다. 청춘스타에서 시작해 ‘쫄매탈라’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최씨의 자살은 믿기 어렵다. 어려운 환경에서 인기 연예인으로 성장했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수밖에 없다. 두 아이까지 둔 최씨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씨는 텔런트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 등 무뎠던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사체업을 하며 안씨에게 거액의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목숨을 끊기 직전에도 가족에게 ‘사체업 괴담’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악플’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연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재민



고 안재환씨 자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텔런트 최진실씨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유명인 자살 이후 모방자살이 늘어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의 확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자살’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삶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일까.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살을 택한 연예인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들과 동반 자살한 주부, 가족들을 해의로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다가 의로움을 못 견

디고 못하고 말수나 활동이 줄어든다. TV를 보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는 등 무슨 일을 해도 흥이 나지 않는다. 우울 증은 가족의 사랑과 질병, 실직, 실연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애 찾아오기도 한다. 평생 동안 남성의 경우 10명 중 1명, 여성 5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에 시달린다. 자살자의 80%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수개월 전부터 자살의 징조를 보인다. 가족이나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고백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는 것이다. 흔히 보이는 전조 증상은 다 음과 같다.

기고

진선기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자 체육하기 좋은 계절이다. 문화수도 광주에서도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마련돼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친 광주시는 오는 10월 6일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한다. 장애인체전의 주인공인 장애인 선수들이 오는 시기는 광주가 정말 민주·인권도시인지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된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인 역시 각기 다르다. 장애인을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장애인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자세, 시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들이도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한다.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무단적으로 행동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일 뿐이므로, 적극적인 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전남대병원 우울증임상연구센터장>

있을때 추축하거나 유심히 보지 말라. 괴잉보호나 괴잉염려, 그리고 괴잉친절도 금물이다. 장애인과 식사할 때 음식 먹는 일을 미리 돕지 말라. 장애인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다. 특히 동성이나 자신을 배틀지 말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 원하며 자신을 나타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그들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체전 역시 장애인들의 친목경기가 아니라 엄연한

전국 장애인체전에 관심 갖자

민들의 의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인도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을 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인 역시 각기 다르다. 장애인을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장애인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자세, 시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들이도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한다.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무단적으로 행동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일 뿐이므로, 적극적인 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전남대병원 우울증임상연구센터장>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들이 체육행사를 할 때면 재활운동 품으로 치부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엄연한 장애인 체육도 ▲디딤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라는 단계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재할의 차원에서 벗어나 즐기는 차원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진지하게 봐야 한다. 체육을 전혀 모르는 장애인들을 체육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디딤체육과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생활속에서 체육을 즐기는 생활체육,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스포츠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체육과 각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인권도시답게 성공적인 인권체전이 되도록 하자. <광주시의회 부의장>

우울증과 자살

자살하는 가장 흔한 자살에 대한 사연도 다양하다. 따라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신병비판과 경제적 궁핍 등 생계형 자살에서, 고독과 허무, 정신적 중압감으로 인한 실존형 자살까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런 자살 동기는 모두 도화선일 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열성히 살아가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게 마련이다. 자살하는 이유 중에서 ‘우울증’은 첫째로 손꼽힌다. 학계 보고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의 80%에 이른다. 우울증은 말 그대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병이다. 또한 의욕

잡은 도난 사고, 자전거 타기 운동에 찬물

광주 금호생명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최근 조금은 내렸지만 비싼 유류비와 주차장 이용료 때문에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려고 한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전거 도난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적잖게 듣는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자전거 도난 사실을 빌딩 경비근무자에게 말했다니 그 경비원은 “자신들도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실정이다”면서 개인책임으로 돌려버리려한다. 그렇다고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나. 특히나 대형 빌딩은 10부제까지 실

수영장 ‘생리 할인’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건강을 위해 중학교 다니는 딸 둘과 함께 매일 수영장을 다닌다. 수영장을 이용할 때마다 여성으로서 할거기 개선해야 할 점을 느낀다. 월경단위로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한달 중 생리기간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은 수영장 이용요금에서 빼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물론이려니와 딸들의 경우도 생리 기간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데 이때 수영장에 간다는 것은 꿈도 못꿈다. 하지만 길게는 7일정도 이같은 이유 때문에 수영장을 가지 못하면서 그 기간동안 똑같이 수영장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집의 경우 생리중인 여성 3명의 총 수영장 결서 일수는 한달에 평균 15~21일이나 된다. 이미 다른 일부 지방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영장 여성들에게 할인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아예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국 모든 수영장에서 여성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한달 이용기간 중 남성들보다 3~7일 정도의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게 맞다. 전국 모든 공립수영장에서는 생리학적으로 인정되는 13~55세 여성 이용자에게 최소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금동동

無 等 鼓

‘우리 땅’ 독도에 거북배가 닿았다.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400여년 전 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북선의 형상을 한 거북배가 우리 국토 최동단인 독도 앞바다를 당당하게 유영했다. 거북배는 전남도가 거북선을 장안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든 유람선. 길이 49m, 폭 10m 368급의 이 배에는 170명이 탈 수 있다. 거북배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본격적인 취항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을 격조했던 명량대첩의 의미를 이어받아 독도 후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다. 거북배의 모태인 거북선은 16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전함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재란 때 중군한 이반(李芳)의 ‘충무공행록’(忠武公行錄)에는 거북선의 형상과 구조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크기는 판옥선(板屋船)과 같고, 위 갑판을 판자로 덮었다. 배를 덮

은 관자에는 좁은 십자로(十字路)를 만들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도추(刀鎗·칼과 송곳)를 꽂아서 사방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였다. 앞에는 옹머리를 만들어 아가리가 총구멍(銃穴)이 되게 하고, 뒤에는 거북의 꼬리(龜尾)를 만들어 붙이고 그 꼬리 아래 총구멍을 내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적선에 돌진하였는데, 적병이 배 위에 올라 덤벼들 다가는 판자에 꽂혀있는 칼과 송곳에 찔려서 거꾸러지고, 좌우 전후에서 일시에 총을 쏘며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격하므로 크고 작은 해전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 특수 제작된 거북선은 16세기 어느 나라 전선과도 견줄 수 없는 성능을 자랑했다. 이처럼 뛰어난 거북선의 명성을 이어받아 태어난 거북배가 울돌목에 오가며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발전의 도우미로 거듭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박치영 체육·비즈니스부장Unipark@

거북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독신·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회 2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